

위생경찰과 콜레라

신좌섭(의사, 한국의학사)

1. 국제 전염병의 상징 콜레라

콜레라는 국제적 급성전염병의 한 상징이다. 그러나 페스트, 발진티푸스, 천연두, 결핵 등의 다른 국제 전염병과는 달리 역사의 무대에 비교적 뒤늦게, 그렇지만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콜레라는 19세기 초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증상주의가 건설해놓은 세계 교역망을 타고 오대양 육대주를 휩쓸어 제1차 세계 대유행(pandemic,

1817-1823)이라는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질병사 연구자들은 콜레라가 원래 인도 갠지스강 유역의 오랜 풍토병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것이 19세기 근대 문명의 진보, 특히 교통의 발달에 따른 국제 교류의 파도를 타고 지역 풍토병에서 일약 국제 전염병으로 데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초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콜레라의 세계적 대유행은 '세계 근대화'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를 콜레라가 처음 휩쓴 1821-

22년은 제1차 세계 대유행기에 속하는 기간으로서 1년 여에 걸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858년(제3차 세계대유행)의 유행 때에는 5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조선의 인구를 1천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면, 이 두 차례의 유행을 겪

으면서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잃은 것이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ibrio Cholerae)의 감염에 의한 소화기계의

콜레라는 페스트, 천연두, 결핵 등의 국제 전염병과는 달리 역사의 무대에 뒤늦게 그러나 화려하게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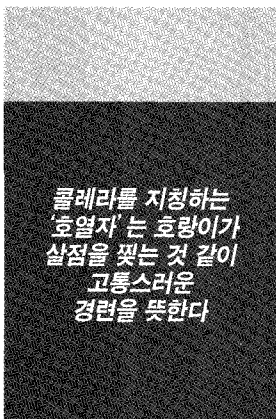
급성 전염병으로서, 병원체인 콜레라균이 음식물을 매개로 입으로 들어가 격렬한 설사와 탈수증상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다리로부터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해 온몸을 비틀고, 입으로는 뱃속의 모든 것을 토하고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탈수가 진행됨에 따라 체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혈압이 떨어져 죽음에 이르는데, 방치할 경우의 사망률은 약 75% 정도이다.

2. 콜레라의 명칭과 원인론

순조 21년(1821년) 8월의 첫 번째 대유행 당시 조정은 귀신을 위로하는 여제를 지내 이 괴질을 누그러뜨려 보고자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괴질의 횡포 아래 흉흉해진 민심은 '남만(南蠻)의 백련교도(白蓮教徒)가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우물과 오이밭에 독을 뿌리고 다녀 괴질이 생겼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냈다. 이에 조정은 의주로부터 들어온 천주교도 일당을 체포하는 일대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허황된 소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백성들이 콜레라가 식수와 생식(오이는 여름철 대용식으로 많이 이용되었다)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과 의주가 콜레라의 유입 경로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기록을 추적해보면 평양부에서 처음 발생한 콜레라는 북경으로부터 요동 일대와 의주를 거쳐 들어와 평양에서만 10일만에 수천의 사망자를 냈고 이듬 해까지 전 국토를 휩쓸어 수십만의 사망자를 냈다. 이윽고 1822년 8월 중순에는 대마도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關)를 통해 일본에 전파되었고, 이것이 일본 최초의 콜레라 유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처음 겪는 이 질병에 대한 명칭은 구구하여 코로리(ころり), 켄큐(見急), 댛포(鐵砲)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여기서 '코로리'는 콜레라의 음역이 아니라 '대변에 죽는다'는 뜻이며, 나머지 명칭도 마찬가지로이다. 미지의 이 질병에 대한 우리 나라의 초기 명칭들이 주로 원인론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대변에 죽는' 현상에 치중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광무개혁 이후 콜레라를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된 '호열자(虎列刺), 또는 호역(虎疫)'이라는 명칭은 '호랑이가 살점을 찢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경련'을 뜻하며, 콜레라의 서양식 발음과도 유사하여 해방 이후까지 널리 이용되었다.

3. 호열자의 예방과 치료

콜레라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질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식적 예방 및 치료법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종 때의 명의 황도연은 콜레라를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던 꼭란병의 일종으로 보아, 회생산(回生散)을 중심약으로 하여 환

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대중처방을 하였으며, 위기(胃氣)를 복돋아 온보(溫補)를 도모하였다.

한편 민간에서는 콜레라를 귀신의 소행으로 간주하였으며 콜레라 귀신은 매운 기운(고춧가루나 목화씨 태우는 냄새)과 샷

갓, 불, 가시를 두려워하고 당나귀 울음소리, 널판에 바가지 비비는 소리를 싫어한다고 보았다(그림). 때문에 이것들이 콜레라 벽사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위인의 그림이나 독수리 그림, 또는 호랑이 그림을 종이에 그려서 실내 입구에 붙여두면 콜레라 병마가 두려워서 들어오지 않는다고도 하였다(그림). 또 문쪽에 식칼이나 커다란 짚신 한쪽을 걸어놓아도 병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었다. 여기서 커다란 짚신은 콜레라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몸집이 큰 무서운 장수를 상징한다.

위의 상징들과 더불어 매운 음식(고추떡, 마늘 등)과 다량의 소주, 호랑이 고기를 복용하는 것도 콜레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근대의학의 지식이 보급됨에 따라 고종 32년(1895)에는 '환자접촉 차단'을 원칙으로 한 콜레라 예방의 서양식 규정들(검역규칙, 호열자 예방규칙, 호열자소독규칙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규칙은 경찰력을 제대로 갖춘 일제시대에 들어서부터 실



위: 콜레라에 걸렸을 때 바가지를 판 위에 얹어놓고 심하게 비벼서 귀가 째지는 듯한 소리를 내게 하면 콜레라 귀신이 그 소리가 싫어 도망간다고 하였다

아래우: 우리 민화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회보(喜報) 호랑이는 까치와 함께 등장하고 악을 물리치는 벽사. 달과 호랑이는 벽사의 실물인 대나무와 함께 등장한다고 한다

아래좌: 1946년 8월 9일 독립신보의 콜레라 기사 이때까지 호열자 환자가 8천 4백 명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5천 5백 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환자는 폐는 엄벌에 처한다는 좌측 기사로부터 당시까지도 환자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제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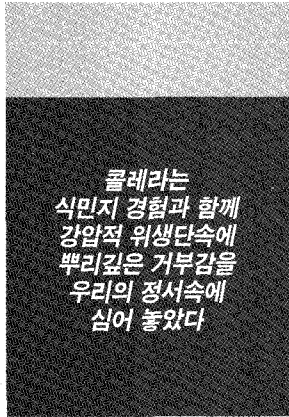
일제는 콜레라 유행 시 중국, 대만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검역, 예방주사 접종, 음식점의 단속, 파리의 구제, 집회의 금지, 불필요한 인구이동의 방지를 통해 유행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제가 조선인을 위해서 과연 그런 조치를 취했겠느냐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 같은 조치는 식민지 경영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주민사회는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들에게는 일종의 생물학적 위생 환경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같은 조치는 필수적이었

다. 또한 유사 이래 지속되어 온 '중국→조선→일본'의 전통적인 질병전달고리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주민들의 대참사는 소요와 불안만을 일으켜 식민지 통치권력을 위협할뿐더러, 조선을 문명화한다는 제국주의적 명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무단(武斷) 경찰력에 의존한 일제의 전염병 예방책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 전염병 환자의 격리수용을 위해 세운 피병원(避病院, 즉 격리병원)은 격리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환자 자신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 피병원에 격리해야 할 환자의 색출을 위한 방법으로는 의사의 신고, 환자 가족의 신고, 밀고, 투서, 직접 호구조사, 건강진단 등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경찰에 의한 호구조사가 70%를 차지하였다.

'칼찬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피병원에서 죽는' 일제시대의 역사적 경험은 해방 후까지 소위 '위생경찰'에 대한 뿌리깊은 두려움을 남겨 오랫동안 우리 나라 보건정책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다(그림).



4. 요약

콜레라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항생제와 수액요법의 발달에 의하여 사망률도 1-2%에 불과한 질병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19-20세기의 콜레라에 견줄만한 질병은 중세사회를 붕괴시킨 막강한 위력의 페스트 정도밖에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콜레라는 그 위력으로 인하여 근대화 이후의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식민지 경험과 더불어 강압적 위생단속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을 우리의 정서 속에 심어놓는데 결정적 구실을 하였다. 8